

지역 매아리

日 수출규제 대책반 가동

완주군 악취유발업체 점검 강화

완주군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악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점검 강화에 나섰다.

완주군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축사의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절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에는 악취모니터링요원 8명을 2개조로 구성해 매일 업체를 순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간시간대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 야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점검내용은 낮 시간에는 악취농도가 낮으나 저녁시간 악취농도가 높아지는 사업장, 낮 시간 발생되는 악취와 저녁시간 발생되는 악취가 다른 사업장 위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악취 농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 포집도 병행해 악취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이 많은 축사는 시설밀폐, 악취저감제 사용 권고, 환풍기 방향 조정 등을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악취포집도 병행해 악취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사용중지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

방치된 생활쓰레기 정비활동

김제시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교월사모) 및 직원 등 50여명은 지난 9일 중앙병원 회전교차로에서 교통휴먼시아, 학교 인근 구간에 걸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정비 활동을 펼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고 규격공부에 맞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거리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월사모는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등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은 쓰레기 집종 단속 대상임을 주민들에게 인지도 높이고 근본적인 쓰레기 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홍보를 실시했다.

박성일 회장은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기업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등 적극

완주군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반 가동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세계 지원 등 발 빠른 대응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은 12일 한 음식점에서 박성일 군수와 산단진흥회(회장 김영보),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박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

까지 우리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군수는 또 "기업 내부적으로도 대체재 개발과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뒤 "기업과 지원기관이 긴밀한 상호 협력 속에 재도약과 전회위박

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정부 대응책과 발맞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자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지난 7일부터 정철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이날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융자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간 추가 연장해 줄 계획이다. 완주군은 또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차,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 서비스 본격

개방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플랫폼 'ZET' 구축 완료

현대자동차가 개방형 라스트마일(Last Mile) 모빌리티 플랫폼인 'ZET(제트)'를 구축 완료하고 중소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함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12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제주도에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1인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30대와 전기자전거 80대를 투입,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본격 선보인다.

시범 서비스는 현대차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B2B)하고 이를 이용해 복수의 서비스 운영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B2C)하는 개방형 구조로 이뤄진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과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의 라스트마일 솔루션은 ▲사용자 앱, 고속 IoT 모듈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제공을 통해 운영사의 비용 저감과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헬멧 비치, 보험서비스, 속도 제한 기술 등을 지원해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이번 개방형 라스트마



현대차는 제주도에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 30대와 전기자전거 80대를 투입,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본격 선보인다.

일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각 지역의 공유 기기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서울 및 대전 등 일부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 융합

기술개발실 최서호 상무는 "이번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시범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전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동 개인 모빌리티를 이용한 공유사업이 한국에서도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중소기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제주도 릴레이 홍보 캠페인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 대국민 대상으로 대대적 전개

(사)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정희운 위원장)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6까지 김제시 벽골제 중심에서 펼쳐지는 제21회 지평선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기 위해 제주도 릴레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는 2개팀 5명으로 구성된 지평선축제 홍보단은 8월 3일부터 8월 7일 까지 여름 휴가철, 전국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를 방문해 관광객 등 제주도민에게 마스크팩, 홍보용 연필세트, 리플릿 5만부를 배부하는 등 제21회 지평선축제를 적극 홍보 했다.

제주도 방문, 지평선축제 홍보 캠페인에는 양해안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장삼이 대의원 등 5명이 2개조로 편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장으로 오세요의 여객기를 메고 서귀포 야간 페스티벌, 무병장수의 도시 서귀포 선포 2주년 기념식장, 제주해녀문화축제, 제주도 이종섭 거리, 제주대 앞, 제주 공항 등에서 제21회 김제 지평선축제 개최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많은 관광객 및 제주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또 오는 8월 말에는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중심으로 서울 새마을 중앙연수원, 세종합창사, 서울 및 부산



터미널과 역전, 서울 광화문 광장, 전국 시도청 등에서 지평선축제 홍보를 대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정희운 위원장은 "올해 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농경문화축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축제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9만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땀을 흘려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화합의 장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제74주년 광복절 맞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간담회 개최

김제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2일 국가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박준배 김제시장과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 다섯분을 모시고 관내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유족들의 애국정신과 순국선열의 발자취에 대해 경청하고 이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준배 시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해 회상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유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 이날 참석하신 분들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거나 사망한 애국지사의 후손들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공훈은 애족장을 수령한 정동원, 건국포장을 수령한 정한조, 유종규, 대통령표창을 수령한 오연길, 양성도의 후손들로서 현재 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김제시에서는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 등 보훈관련 국경일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마련하여 위로 격려 하여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혜영)는 12일 8월 월례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실버콘서트의 중간점검과 작은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 등 하반기 특색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회의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찾아가는 실버콘서트"를 지난 7월 23일부터 추진하면서 경로당을 직

접 찾아가는 어르신들과 노래한마당을 펼쳐 현재까지 3개 경로당(나시, 모산, 다복) 71명의 어르신이 참여 하였으며 실버콘서트는 9월까지 추진예정이다.

또한 이날 마을 내 작은 정원을 가꾸어 마을미관을 바꿀 '작은 마을정원 가꾸기'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